

“종교개혁 칭의론의 왜곡인가, 전통적인 칭의론 자체의 문제인가?”

— 최갑중 교수 (한국백석대 총장)

박영돈교수의 핵심적인 논지는 이것이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순종과 선행을 배제하는 값싼 구원론, 구원파적 구원론이 범람하고 있는 주된 원인은 종 교개혁 칭의론이나 전통적인 칭의론 그 자체에 있지 않다. 오히려 종교개혁이나 전통적인 칭의론에 대한 무지 또는 왜곡에 있다. 따라서 오늘 한국교회의 상황을 종교개혁 칭의론이나 전통적인 칭의론 그 자체에 두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이다. 박 교수는 칭의와 성화의 불가분리성과 함께 성화를 칭의와 함께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시킨 켈빈을 그 실례로 든다. 과연 종교개혁 칭의 론에 면죄부를 주면서 전통적인 칭의론을 옹호하는 박 교수는 정당한가? 논찬자의 결론은, 만일 종교개혁과 전통적인 칭의론의 대변자를 켈빈(J. Calvin)에게 돌린다면, 박 교수의 주장은 정당하다. 하지만 루터(M. Luther)에게 돌

린다면 마냥 면죄부를 주기는 어렵다. 그런데 아쉽게도 계몽주의 시대 이후 지난 200년간 서구교회와 그리고 한국교회의 칭의론에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은 켈빈이 아닌 루터였다. 박영돈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켈빈의 성화의 신학이 한국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쳐졌다면, 한국교회의 오늘은 달라졌을 것이고, 사실상 오늘의 논쟁도 불필요했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종교개혁의 칭의론을 일방적으로 오해하거나 매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박 교수의 주장에 동의한다.

흔히 루터를 가리켜 “칭의의 신학자”로, 켈빈을 가리켜 “성화의 신학자”로 칭할 만큼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신칭의를 강조하였고, 켈빈은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와 의 연합을 통하여 칭의와 함께 동시적으로 주어지는 성화를 강조하였다. 종

교개혁의 선구자였던 루터는 로마 가톨릭교회와의 대립관계에서 선행을 배제하는 ‘복음’과 선행을 요구하는 ‘율법’을 철저하게 서로 분리시켰다. 루터에게 있어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수동적인 의와 관련되어 있다. 반면에 율법은 인간의 순종과 선행을 요구하는 능동적인 의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루터는 수동적인 의를 강조하는 칭의와 능동적인 의를 강조하는 성화를 서로 분리시켰으며, 능동적인 의인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같은 서신으로 간주하였다. 결과적으로 루터는 성화를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로부터 배제시켰을 뿐만 아니라, 복음과 율법, 칭의와 성화, 믿음과 행위, 신학과 윤리, 직설법과 명령법을 서로 분리시켰다. 심지어 루터는 예수의 산상설교(마 5-7장)에 있는 윤리적인 교훈과,

바울의 서신에 들어 있는 많은 윤리적인 권면들을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박영돈교수가 밝힌 것처럼, 켈빈은 루터보다 약간 후 시대 사람으로 루터의 이신칭의 신학의 병폐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성화의 중요성과 더불어 칭의와 성화의 불가분리성을 강조하였다. 켈빈에게 있어서 칭의와 성화는,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서 인성과 신성이 온전히 연합되어 있어 어느 순간도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의 연합을 통하여 성령에 의해 동시적으로 주어지며, 어느 순간도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성화 없는 칭의나 칭의 없는 성화를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칭의 없는 구원이나 성화 없는 구원을 생각할 수 없다. 칭의와 똑같이 성화도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한국

교회에서 켈빈을 많이 말하지만 이와 같은 켈빈의 입장이 제대로 소개되거나 가르쳐지지 못했다. 장로교의 신학도들 중에 켈빈의 기독교강요를 제대로 읽고 졸업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박영돈교수가 김세운 교수를 포함하여 종교개혁 칭의론에 대한 비판자들을 반박할 때, 서구교회나 한국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 루터의 칭의론의 단점을 지적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다음 주에 계속)



◀ 최갑중(백석대 총장, 신약학 교수) 교신대와 고려 신학 대학원 졸업, 미국 Reformed 신학대학원, Calvin 신학대학원, Princeton 신학대학원, Iliff 신학대학원과 Denver 대학교 대학원에서 신약(부전공 구약)을 전공(M.A, Th.M., Ph.D. in Biblical Studies).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RTM(Restoring Truth Media)에서는 작년 12월 5-6일 양일간 서울 연동교회에서 “이신칭의, 이 시대의 면죄부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된 신학 포럼의 내용을 미국 내 한인교회를 섬기시는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을 위해 본 신문에 연재하게 되었습니다. RTM(Restoring Truth Media)은 미디어를 통해 진리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선교단체입니다. 동성애 문제로 혼란에 빠진 이 시대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 약 2년에 걸쳐 제작한 첫 작품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https://youtu.be/XBSfm1KJVps) 다큐는 2016년 1월 초 유튜브에 업로드한 이래 현재 백만 명 이상이 시청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미디어를 제작하여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타락(목한홍 목사): https://youtu.be/sRetFg46VRI, 주를 보지 못할 교인들(박영돈 교수): https://youtu.be/-PscLKL_PUo,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박영돈 교수): https://youtu.be/RcTJmGhLzMQ

RTM RESTORING TRUTH MEDIA

www.restoringtruthmedia.org